
R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의 ‘크림반도
합병’ 관련 기사 분석

-‘RadioFreeEurope/RadioLiberty’, ‘Новая газета’의 2014·2015년,
2019년 기사 비교를 중심으로-

- ▷ 학 생 이 름: 박진택 (2016-13228,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 ▷ 지 도 교 수: 이옥연
- ▷ 연락처: [REDACTED] / jeantaek1002@naver.com

- 목 차 -

I. 서론	1
II. 연구 설계 및 선행연구	3
1. 연구 방법	3
2.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 'RFE/RL'과 'Новая газета'	3
3. 선행연구 검토	5
III. RFE/RL 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8
1. 기사보도 최다빈도 단어 비교	8
2. 기사보도 단어 정서 분석	10
3. 기사보도 단어 군집형태	14
4. 분석 결과 종합	19
IV. Новая газета 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1
1. 기사보도 최다빈도 단어 비교	21
2. 기사보도 단어 정서 분석	24
3. 기사보도 단어 군집형태	27
4. 분석 결과 종합	31
V.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 여론 영향력 검토	32
1.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 여론	32
2. 러시아 여론과 진보계열 미디어의 영향력	33
VI. 결론	35
VII. 참고문헌	36
VIII. 부록	38

I. 서론

2014년 3월 21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2014년 3월 20일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State Duma)의 크림반도 합병에 관한 법안 채택을 뒤이은 상원의 비준 이후 3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서명을 기점으로 기존에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소유권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크림반도 합병은 합병 그 자체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간스크(Lugansk) 등으로까지 독립 움직임을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내전, 즉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크림반도 합병 사태는 단순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대립구조로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다. 물론 합병 과정 속 현실주의(realism)적인 국제정치적 요소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였으며, 특히 그 중 지정학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매우 중시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충돌 없이 진행되었던 1993년, 2006년, 2009년 3차례의 가스관 관련 분쟁과 달리 크림반도 합병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및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독특한 학문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학계에서는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이 창발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크림반도 합병을 ‘강대국 러시아가 주변의 약소국을 위협하고 순식간에 점령해버린 사례’¹⁾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몹시 강하다. 그 때문에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대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어서 ‘크림반도 합병’이란 사건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가교국가이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한국이 자국 영토를 강대국인 러시아에게 빼앗긴 우크라이나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에 강대국이 포진한 국제환경 속에서 대내적으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통한 역량 축적과 발전을 해야 하고 보다 큰 시각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²⁾는 식의 역사적 교훈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바라보는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시각 역시 경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러시아와 EU 및 미국 간의 대결 구도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크림반도 합병을 한국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연관 짓는 연구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앞서 언급한 바와 비슷하게 강대국과 약소국 간 힘의 대결이라는 측면에만 입각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약소국에 가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³⁾ 학술적 논의 다양성의 부족함은 본연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사회과학, 더 구체적으로 정치외교학의 영역은 특히 그렇다.

-
- 1) [동북아窓] 크림반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교훈, <천지일보>, 2018.12.1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772>) (검색일: 2019.11.20)
 - 2) 서동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150권 0호, 2014, p. 6, 서동주, 「크림병합 이후 3년: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0, 2017, pp. 3~5
 - 3) 주요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 온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러시아 관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세미나 2015.4.3. 『발표자료』, 서동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150권 0호, 2014, 서동주, 「크림병합 이후 3년: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0, 2017.

현재 한국 학계의 이러한 제한된 논의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행위자 내에 존재하는 정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논쟁, 인텔리 계층의 담론,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러시아 시민들의 여론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크림반도 합병 5주년을 맞아, 러시아 내에서 본 사태와 관련한 담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민들의 인식 역시 다시금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 「R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의 ‘크림반도 합병’ 관련 기사 분석」은 다양성이 부재한 현재 학술적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필자는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인 ‘RadioFreeEurope/RadioLiberty’(RFE/RL)와 ‘Новая газета’(노바야가제타)에서 해당 사건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어떻게 조명하고 기술했는지를 R 텍스트 마이닝⁴⁾ 기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언론 자유도가 매우 희박한 러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온 두 미디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논문은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로 대표되는 RFE/RL과 노바야가제타가 크림반도 합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와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식의 보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여론 형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간 해당 사건을 다룰 때 간과되어왔던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와 러시아 시민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진보계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4) R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오픈소스 패키지의 집합체이다. 1996년 Robert Gentleman과 Ross Ihaka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통계, 머신러닝, 금융, 생물정보학, 그래픽스에 이르는 다양한 패키지가 무료로 제공된다. 본 연구는 R이 제공하는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를 사용한다.

II. 연구 설계 및 선행연구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진보 미디어로 거론되는 ‘RadioFreeEurope/RadioLiberty’(RFE/RL)와 ‘Новая газета’(노바야가제타)의 기사들을 2014·2015년, 그리고 2019년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R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여 비교 분석한다. 각 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 ‘Crimea annexation’, ‘аннексия Крыма’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2019년 11월 29일 기준) 2019년 RFE/RL의 기사는 137개, 2014·2015년 기사는 879개였으며, 2019년 노바야가제타의 기사는 64개, 2014·2015년 기사는 201개로 총 1,281개였다.

두 미디어 기관의 기사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첫째, 각 기관지의 2019년과 2014·2015년 기사들의 최다빈도로 등장한 단어들을 비교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볼 것이다. 둘째, 정서 분석을 통해 각각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긍정, 부정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살펴본다. 정서 분석에 사용된 용어집은 Bing 용어집으로, Bing 리우(Bing Liu)와 그의 협력자들이 만든 단어집이다. 본 용어집은 유니그램(unigrams), 즉 단일 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단어를 이진 형식에 맞춰 긍정과 부정 범주로 분류하는 표이다. 또한, 정서 분석에 있을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 바이그램(bigram) 데이터에 대한 정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정 단어가 정서 분석에 갖는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의 단어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엔그램(n-grams)을 통해 연속적인 단어 시퀀스를 몇 가지 방법으로 토큰화함으로써 단어들의 군집형태를 분석할 것이다. 1) 데이터에 존재하는 흔한 트라이그램(trigram)을 알아본다. 트라이그램이란 서로 이어져 있는 세 단어를 뜻한다. 2) 데이터에 존재하는 흔한 바이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연결망을 볼 것이다. 3) 첫째 단계에서 시도한 최다빈도 단어 중 몇 단어와 함께 연동되어 나오는 단어를 찾는다. 모든 단계에 사용되었던 코드(code)는 부록에 담도록 하겠다.

이후 본 연구는 마지막 단계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여론 분석 자료를 살펴본다. 본 여론 분석은 레바다-센터(Левада-Центр-Аналитически Центр Юрия Левады)에서 발표한 것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찬성하는가?’, ‘크림반도 합병이 러시아에게 이득이었는가 아닌가?’,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함으로써 국제조약과 의무를 어겼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우크라이나와 크림과의 갈등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가 어떠한 것 같은가?’라는 4가지 질문을 1600명에게 질문한 자료이다. 5년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의 기사보도가 어떠한 역할을 취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 ‘RFE/RL’과 ‘Новая газета’

러시아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를 받는 국가이다.⁵⁾ 언론인들에 대한 협박과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러시아는 1992년 이후부터 언

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9 Russia,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9/russia>) (검색일: 2019.12.4.)

론인 살해율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언론 검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검열이 일반적인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합병이라는 사건은 프로파간다적인 내용과 반대의견에 대한 탄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 몇몇 소수의 언론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의견에 대립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RFE/RL'과 '노바야가제타'가 있다.

RFE/RL은 프라하에 본부가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이다. 반공산주의를 목표로 1949년 RadioFreeEurope이, 1953년 RadioLiberty가 만들어졌었고, 1972년 이 둘이 합쳐지며 RFE/RL가 성립됐다. 25가지 공식 언어를 사용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23개의 국가에서 방송된다. 뚜렷한 정치적 이념을 지닌 본 언론사는 모스크바에도 대형 사무실을 설립함으로써 러시아가 자신의 주요 대상국임을 확실시켰다. 이는 냉전 이후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철수했던 RFE/RL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미국 및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RFE/RL은 다른 러시아 언론사들과는 다르게 재정적 위협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탄압 및 압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RFE/RL은 특히 러시아의 법적 그리고 행정적 처분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RFE/RL은 2012년부터 '외국 에이전트' 법에 따라 '외국 에이전트'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출처, RFE/RL의 목적,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부층이 누구인지 등을 러시아 정부에 규칙적으로 알려야 한다. 2018년에는 러시아 재판부가 RFE/RL이 '외국 에이전트'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⁶⁾ RFE/RL 측은 이와 같은 '외국 에이전트' 법이 오로지 미국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미디어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는 러시아 두마에 언론 외국 소유권을 20퍼센트로 제한하는 법이, 그리고 '국가의 안정과 공적 질서, 러시아 국민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칠 위험이 있는 언론을 제한하는 법이 상정되기도 했었다.

'새로운 신문'이라는 뜻을 가진 노바야가제타는 1993년 드미트리 무라토프 등 진보성향 언론인들에 의해 창간되었다. 노바야가제타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진보계열 미디어라 불리는 이유는 기자들의 죽음 때문이다. 창간 이후 노바야가제타는 6명의 소속 기자들이 살해당했으며, 이들 모두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인물들이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안나 폴릿콥스카야 기자의 죽음으로, 그녀는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괴한에게 권총으로 저격당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체첸전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난민캠프의 실상, 러시아군의 인종청소 및 부패와 같은 사건들을 파헤치던 그녀는 푸틴 정권 최대의 강적이었으며, 푸틴의 생일인 2006년 10월 7일 죽었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폭행, 그리고 살인은 노바야가제타가 직면하는 큰 문제이기도 하나, 이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가 대표적이다. 노바야가제타의 소유구조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인 레베데프 39%, 고르바초프 10%, 나머지 51%는 사원지분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에 의해 레베데프는 현재 소유주로만 남고, 신문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고르바초프 역시 건강상태로 인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정권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바야가제타에게 광고를 의뢰할 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 일례로, 2014년 어떤 회사는 환

6) Andrew Osborn, 'Russian court fines Radio Free Europe for breaking 'foreign agent' law', 2018.7.6.,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usa-media-restrictions/russia-an-court-fines-radio-free-europe-for-breaking-foreign-agent-law-idUSKBN1JV2IK>) (검색일: 2019.12.5.)

불을 받지도 않고 노바야가제타와의 1년짜리 광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노바야가제타의 언론인들은 매우 낮은 봉급을 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겪고 있으나, 사명감으로 러시아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앞서 밝혔듯이, 크림반도 합병 사태는 러시아라는 강대국가의 실질적인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Malyarenko & Galbreath(2013)⁷⁾의 연구는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나기 이전에 코소보 사태를 통해 크림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갈등을 미리 예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매우 높으며 주목할만하다. 이는 실제로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의 책임에 따라 ‘바딘터 원칙’(Badinter Principle)의 예외 사례로 인정된 코소보 독립과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합병도 또 다른 예외로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모스크바의 정당화 논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크림반도 합병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치열하게 제기되며 성숙한 토론 담론을 형성했다.⁸⁾ 특히 Borgen(2015)⁹⁾의 연구가 매우 흥미로운데, 비록 Borgen 역시 자결권(self determination)이 구제적 탈퇴(remedial secession)의 권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Borgen은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가 사용하는 국제법적 담론이 외교정책의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러시아 국내적으로, 그리고 근외(near-abroad) 지역, 중국과 같은 우방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뒤, 러시아가 그간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법적 규범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을 펼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크림반도 합병을 비주류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이 소수지만 존재한다. 기존의 루소포비아(Russophobia)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러시아의 관점에서 서술한 연구¹⁰⁾부터,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남북한 분단 사태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연구¹¹⁾ 등이 있다.

7) Tetyana Malyarenko-David J. Galbreath, *Crimea: Competing Self-Determination Movements and the Politics at the Centre*, Europe Asia Studies Vol. 65 No. 5, 2013

8) 주요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 크림반도 합병의 국제법적 부당함을 논하는 연구들: Christian Marxsen, *The Crimea Crisis-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4 No. 2, 2014, Robin Geiß,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The Mills of International Law Grind Slowly but They Do Grind*,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ume 91, 2015, Brad R. Roth, *The Virtues of Bright Lines: Self-Determination, Secession, and External Intervention*, German Law Journal Vol. 16 No. 3, 2015, Thomas D. Grant, *Annexation of Crim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9 No. 1, 2015, Christopher J. Borgen, *Law, Rhetoric, Strategy: Russia and Self Determination Before and After Crime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ume 91, 2015 크림반도 합병의 국제법적 정당함을 논하는 연구들: Anatoly Kasputin, *Crimea's Self Determination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5, 2015, Vladislav Tolstykh, *Three Ideas of Self-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Reunification of Crimea with Russia*,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5, 2015

9) Christopher J. Borgen, *Law, Rhetoric, Strategy: Russia and Self Determination Before and After Crime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ume 91, 2015

10) 유철종,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푸틴을 위한 변명」, 관훈클럽, 관훈저널 가을호 통권 132호, 2014, 이문영, 「형제국가들의 역사전쟁-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기원」,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15, 백두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요인 분석-방어적 현실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러시아지역전공, 2016.

여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오래된 탐구 대상이었다. 매스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변화 속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증가했다. 그러나 미디어는 단순한 공론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시장과 이용의 집중은 여론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과 태도에 미디어가 미치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낳기 충분했다.¹²⁾ 따라서 현재 학계에는 여론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의 효과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은 의제설정 이론, 점화효과 이론, 프레이밍 효과 이론 등이 존재하며, 현재도 계속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제설정 이론은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맥콤스와 쇼(McCombs & Shaw, 1972)에 의해 최초로 등장했다. 의제설정 효과란 매스 미디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이슈에 대해 공중의 생각, 토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이외의 이슈들은 무시되는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이론들 가운데 하나인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 미디어에서 강조한 주요 이슈가 공중의 인식에 미친다는 효과 연구에서 출발했다. 이후 공공 이슈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나, 선거 후보자들 등 인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으로 의제설정 이론은 영역을 확장하더니, 최근에는 범죄, 마약, 총기 사건 등 일반적인 사회 이슈들이나 광고, 기업 이미지 등 경제적 분야에서도 의제설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³⁾

프레이밍 효과란 ‘선택과 강조, 배제와 집중을 통해 맥락을 제공하고 이슈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뉴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집하는 중심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의제설정과 비슷하게 된 이슈의 성격 중 일부를 선택, 그리고 이를 집중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는 특정 사안의 ‘출연 여부’에 집중했던 의제설정 효과와는 달리, 이슈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구성된 현실’이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¹⁴⁾

점화효과 이론은 “미디어가 어떤 이슈는 버리고 어떤 이슈는 선택해 보도하면서 사람들이 판정하는 기준을 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점화효과 이론은 의제설정 이론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일부 이슈를 버리고 특정 이슈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점화 효과는 이뿐만 아니라, 독자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이를 변하게 만드는 기능까지 주목한다.¹⁵⁾ 점화효과를 미디어 효과와 연결시킨 연구는 인종,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공격적 행동과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왔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들 역시 점차 늘고 있다. 박기묵(2017)¹⁶⁾은 PD 수첩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KrKwic라는 언어분석 프로그램과 언어연결망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보도량과 단어들의 연결밀도를 알아내서, PD 수첩이슈가 일

11) 이유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진보평론, 진보평론 62호, 2014, 우평균,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및 한반도 상황간의 대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57권 4호, 2014

1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과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11.24., pp. 75~76

13) 반현·Maxwell E. McCombs,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2007, pp. 8~9

14) 이건호, 「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점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2006, p 369

15) 이건호, *Ibid.*, p 371

16) 박기묵, 「언론의 점화효과와 정책결정-MBC PD수첩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29권 1호, 2017

반 대중들에게 미국 쇠고기 반대 의식을 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계용택(2015)¹⁷⁾은 1년 3개월간의 러시아에서 발간된 북극 관련 기사 1백만 건 중 기사 제목을 키워드 검색으로 추출한 뒤, 키워드 빈도수, 그리고 기사 내용 분석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극 관련 러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러시아 진보 미디어에 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Slavtcheva-Petkova(2017)¹⁸⁾는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 미디어로 Novaya Gazeta, Radio Echo of Moscow, Radio Free Europe/Liberty를 선정한 뒤, 직접 각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러시아 내 진보 미디어가 겪는 압력을 서술한다. 더 나아가 그는 러시아 언론은 단 한 번도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방향으로 이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적인 언론 모델이 아닌, 새로운 대안 모델로서 러시아 미디어 구조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밖에 Lehtisaari(2015)¹⁹⁾는 푸틴 집권 3기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매체 등 러시아의 미디어 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그에 의하면 2010년대에 들어 러시아 언론은 부분적인 변화를 겪긴 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의 의견이 지배적인 미디어와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미디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17) 계용택,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시베리아연구 19권 2호, 2015

18) Vera Slavtcheva-Petkova, *Fighting Putin and the Kremlin's grip in neo-authoritarian Russia: The experience of liberal journalists*, Journalism 20(11), 2017

19) Katja lehtisaari, *Market and Political factors and the Russian Media*,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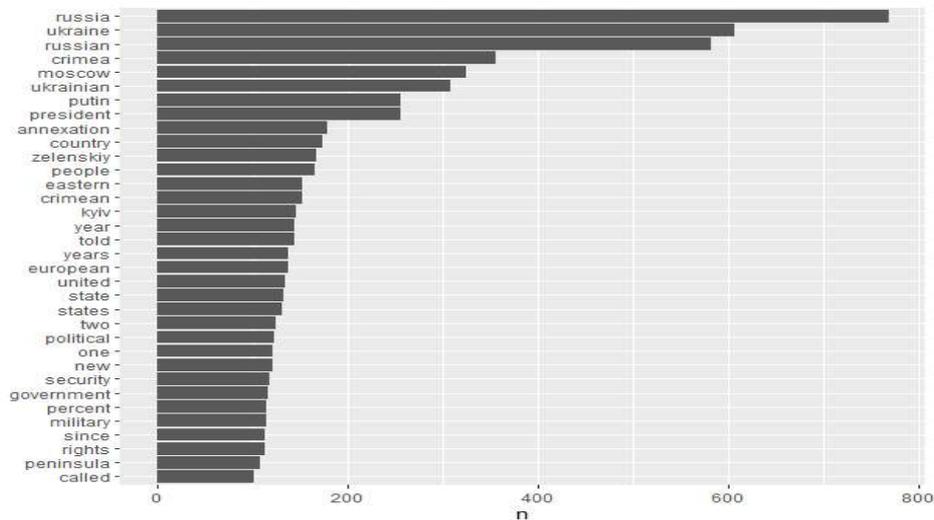
Ⅲ. RFE/RL 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RFE/RL 사이트에 들어가 ‘Crimea annexation’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필자는 2019년으로는 137개, 2014·2015년으로는 879개의 기사를 얻을 수 있었다. 기사 내용을 모두 정돈 테스트 형식(tidy text format)으로 전환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더욱 용이하게 조작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함수는 unnest_tokens() 함수였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불용어(stopword)가 미리 제거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불용어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로서, 접미사, 조사 등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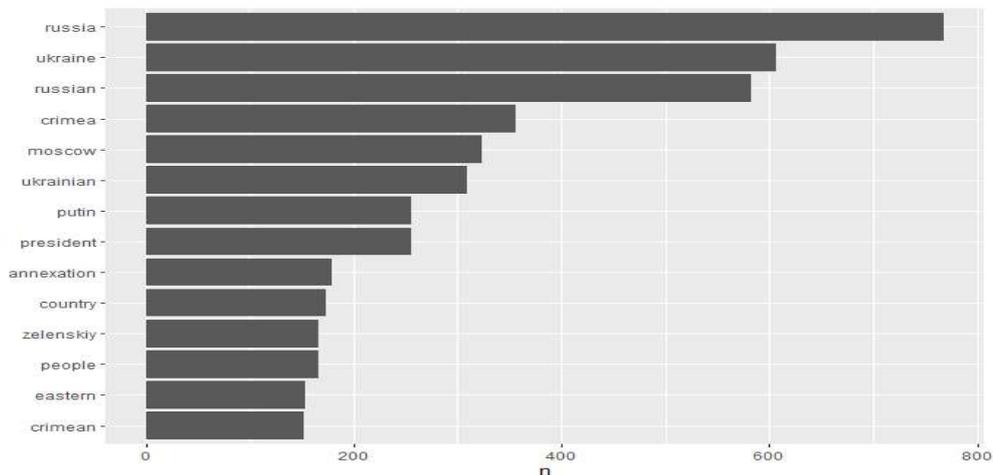
1. 기사보도 최다빈도 단어 비교

2019년도 기사들의 최다 빈도수로 나타난 단어들은 다음 표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표는 각각 총 100번 이상, 15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보여준다.

<표 1>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RFE/RL 기사에서 1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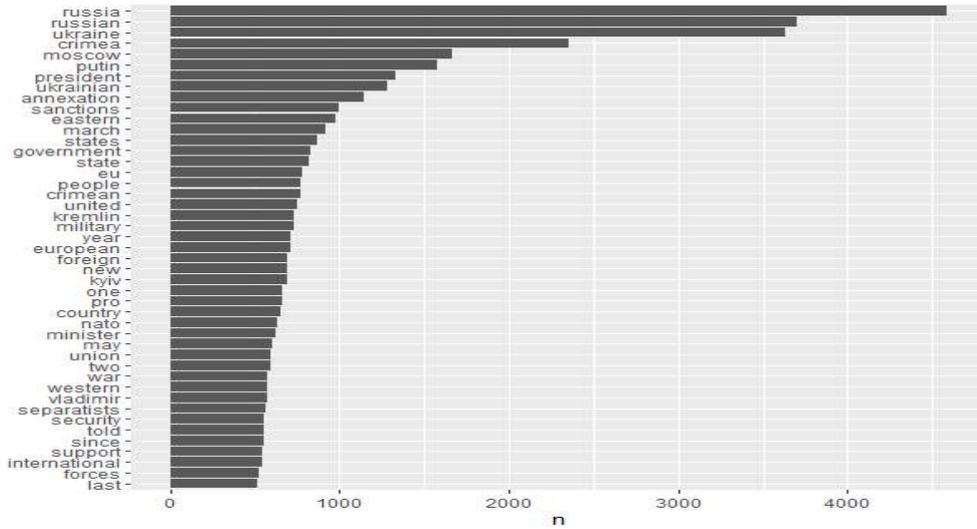
<표 2>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RFE/RL 기사에서 15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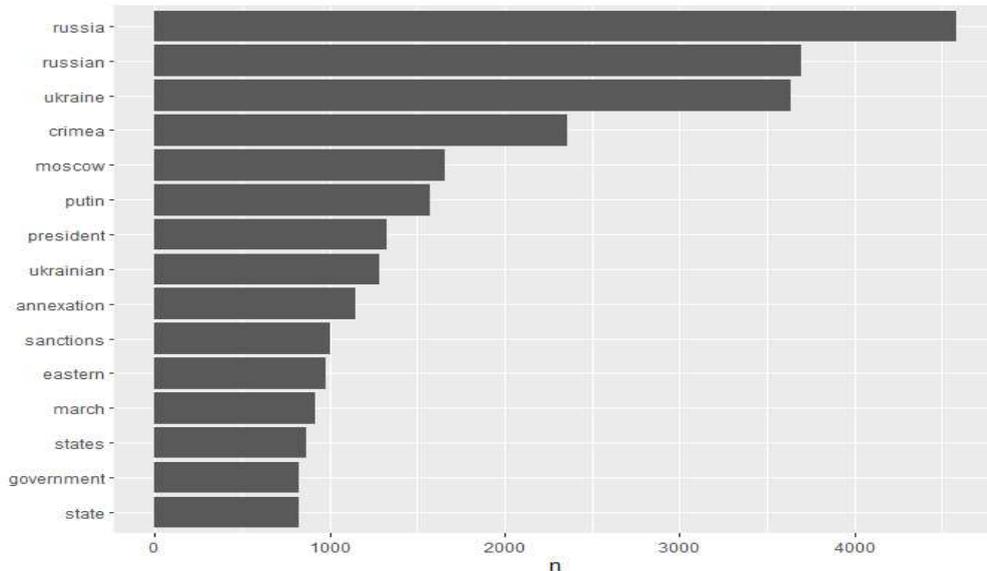
다음은 2014·2015년 기사들의 최다 빈도수로 나타난 단어들이다. 표는 각각 500번 이상, 8

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보여준다.

<표 3>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RFE/RL 기사에서 5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표 4>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RFE/RL 기사에서 8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4·2015년, 그리고 2019년 기사들의 상위 15가지 단어들은 매우 유사하다.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2019년에는 'zelensky'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가리키는 단어로 2019년에 대통령 취임했기 때문에 2014·2015년 기사에는 등장할 수가 없었다. 또한, 2014·2015년 기사에는 'sanctions'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면, 2019년 기사에는 100번 이상 출현한 단어에서도 'sanctions'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5년 사이 국제적 제재에 관한 관심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4·2015년 기사에서 5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과 2019년 기사에서 100번 이상 단어들을 비교해봤을 때, 2014·2015년 기사에서는 'nato', 'separatist'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반면 2019년 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음은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에서 가

사람인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한 부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놀람이나 혐오와 같은 다른 미묘한 정서를 드러내는지를 파악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어의 정서적 의도를 파악하려 한다. R의 정서 분석은 이러한 점에서 큰 도움을 준다. 앞서 밝혔듯이, 필자는 정서 분석을 하기 위해 정서 데이터 셋으로 R 패키지의 Bing 용어집을 사용했다. 다음 표는 RFE/RL의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기사보도 속 최다빈도로 나온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표 5>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RFE/RL 기사보도 속 최다 빈도 정서 단어

순위	단어	감정	단어 개수
1	conflict	negative	93
2	support	positive	90
3	trump*	positive	84
4	like*	positive	57
5	well	positive	55
6	corruption	negative	53
7	work	positive	47
8	killed	negative	44
9	opposition	negative	42
10	illegal	negative	41

다음은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최다 빈도로 나온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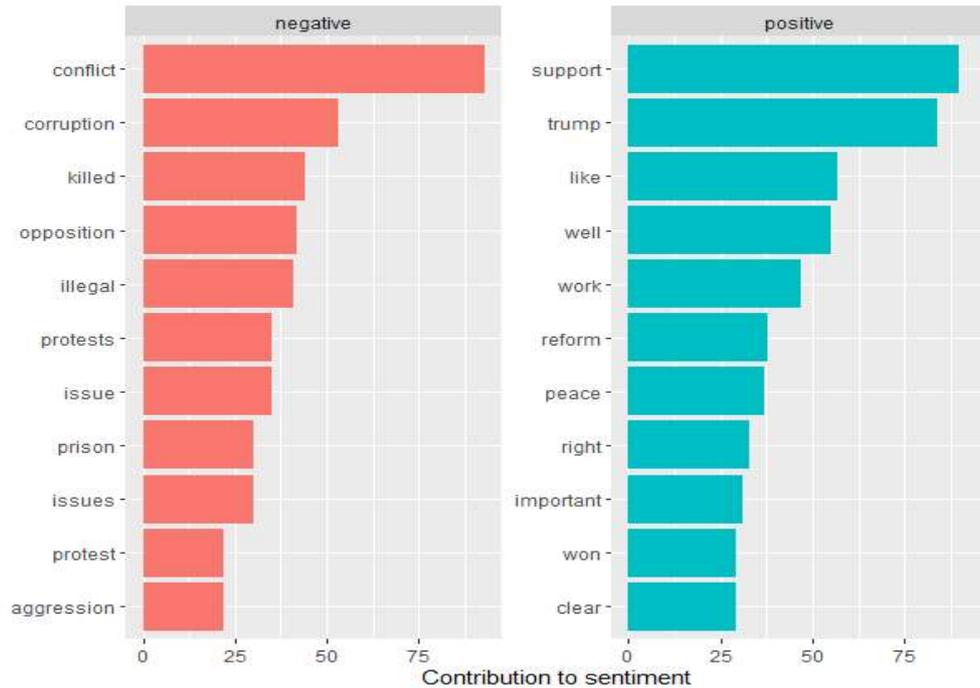
<표 6>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RFE/RL 기사보도 속 최다 빈도 정서 단어

순위	단어	감정	단어 개수
1	support	positive	545
2	conflict	negative	479
3	crisis	negative	403
4	like*	positive	309
5	well	positive	296
6	killed	negative	229
7	illegal	negative	209
8	right*	positive	205
9	opposition	negative	185
10	led	positive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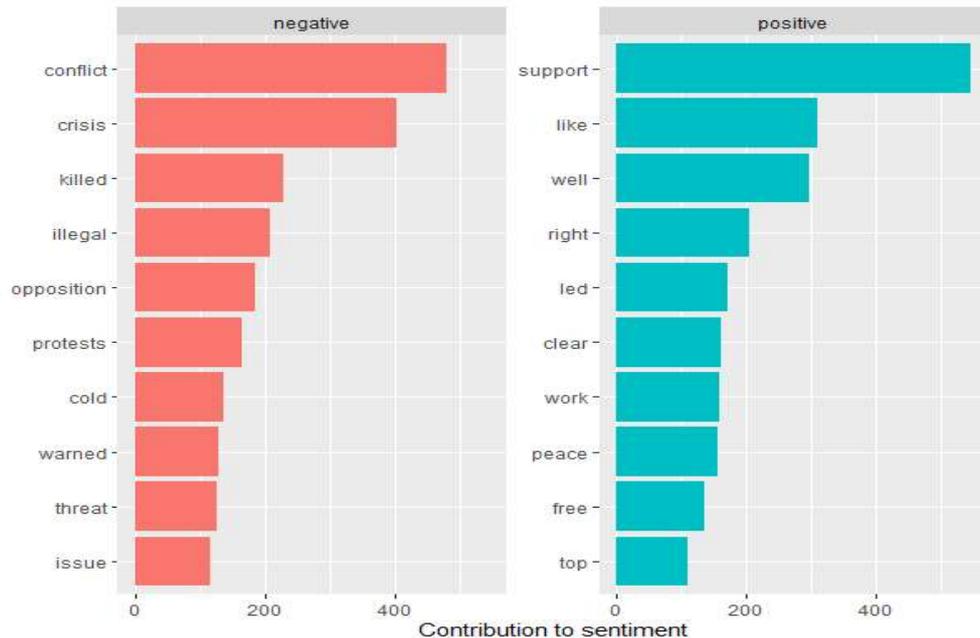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표는 부분적인 한계를 지닌다. 위의 두 표에서 필자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듯이, 각 단어는 정서가 아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trump’의 경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의미하며, ‘right’의 경우 ‘옳다’라는 뜻보다는 ‘권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like’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와 같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했을 때, 나머지 남은 정서 단어들은 연도와 관련 없이 그 종류와 순위 모두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2014·2015년 기사들에는 ‘crisis’(위기)가 최다빈도 정서 단어로 있었던 반면, 2019년 기사들에는 ‘corruption’(부패)가 최다빈도 정서 단어로 있었다는 것이다. ‘crisis’의 경우 크림반도 합병에서 번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 움직임에서 차후 우크라이나 내전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가 당시 2014·2015년에 주목되었으며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orruption’의 경우 우크라이나 기성 정치의 부패에 염증을 느껴 코미디언 출신인 젤

린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은 배경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시간적 배경의 특수성을 제외하고선,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에서도 역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각 연도별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3>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RFE/RL 기사보도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단어



<그림 4>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RFE/RL 기사보도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단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논의한 바와 비슷하게 시간 특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곤,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긍정과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최다 빈도단어 90가지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without	aggression	1
without	clear	1
without	consent	1
without	delay	1

<표 8> RFE/RL 2014·2015년 기사 부정어 뒤 나오는 단어

부정어	단어	개수
never	accept	7
never	fight	3
without	doubt	3
without	fight	3
never	forget	2
never	join	2
without	breakthrough	2
without	consent	2
without	firing	2
without	legal	2

조사 결과, 부정어와 결합된 단어들은 앞서 제시한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비해 훨씬 수적으로 적으며, 단어들의 종류 역시 정서에 영향을 끼칠만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사보도 단어 정서 분석에는 유효한 오류가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크림반도 관련 RFE/RL의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는 각 연도의 특수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비슷한 정서 단어들을 보이며, 긍부정 정서에 기여하는 단어들의 종류 및 순위까지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부정어와 함께 연결된 단어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정서 분석은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사보도 단어 군집형태

앞선 분석들은 단어를 개별 단위로 간주하여 정서 및 핵심어를 고려했다. 그러나 단어란 다른 단어와 함께 이어서 하나의 문맥, 더 나아가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RFE/RL의 2019년과 2014·2015년 기사보도 단어들의 군집형태를 알아본다.

1)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기사보도 트라이그램 분석

다음은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의 2019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9>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9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단어3	개수
1	president	vladimir	putin	58
2	russian	president	vladimir	39
3	russia	backed	separatists	28
4	annexation	ukraine	criema	27
5	ukraine	crimean	peninsula	26

6	ukraine	crimea	region	25
7	conflict	eastern	ukraine	20
8	russia	annexation	crimea	19
8	separatists	eastern	ukraine	19
10	president	petro	poroshenko	18

다음은 2014·2015년 기사의 트라이그램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10>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단어3	개수
1	president	vladimir	putin	406
2	russia	annexation	crimea	283
3	russian	president	vladimir	267
4	pro	russian	separatists	190
5	separatists	eastern	ukraine	139
6	president	barack	obama	113
7	president	viktor	yanukovych	108
8	world	war	ii	107
9	annexation	ukraine	crimea	89
10	annexation	crimea	march	87

2019년 2014·2015년 기사 모두 푸틴 대통령에 관한 트라이그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9년은 1위·2위, 2014·2015년은 1위·3위). 흥미롭게도 ‘separatist’에 대한 트라이그램 역시 두 연도에서 모두 주목되었다. 2019년의 경우 3위(russia backed separatists)와 9위(separatists eastern ukraine)를, 2014·2015년은 4위(pro russian separatists)와 5위(separatists eastern ukraine)를 차지했다. 이는 앞선 최다 빈도단어 분석에서 2019년의 경우, ‘separatist’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하다. ‘annexation’을 중심으로 한 군집도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9년은 4위·8위, 2014·2015년은 2위·9위·10위) 외국 대통령에 대한 트라이그램도 각각 연도의 기사 보도에서 모두 중요 순위에 올랐다. 2019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인 포로셴코가 10위에, 2014·2015년의 경우 미국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6위를,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인 야누코비치가 7위에 올랐다. 흥미롭게도 2014·2015년 기사 보도에는 ‘세계 2차 대전’(world war ii)이라는 트라이그램이 8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 이는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났던 당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큰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되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래도 2014년과 2015년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적 제재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이 이러한 차이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인다.

2)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기사보도 바이그램 분석

다음은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의 2019년 기사보도 속 바이그램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11>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9년 기사보도 속 바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개수
----	-----	-----	----

1	eastern	ukraine	112
2	united	states	101
3	annexation	crimea	72
4	human	rights	66
5	vladimir	putin	65
6	president	vladimir	58
7	european	union	56
8	crimean	tatars	52
9	russian	president	47
10	ukraine	crimea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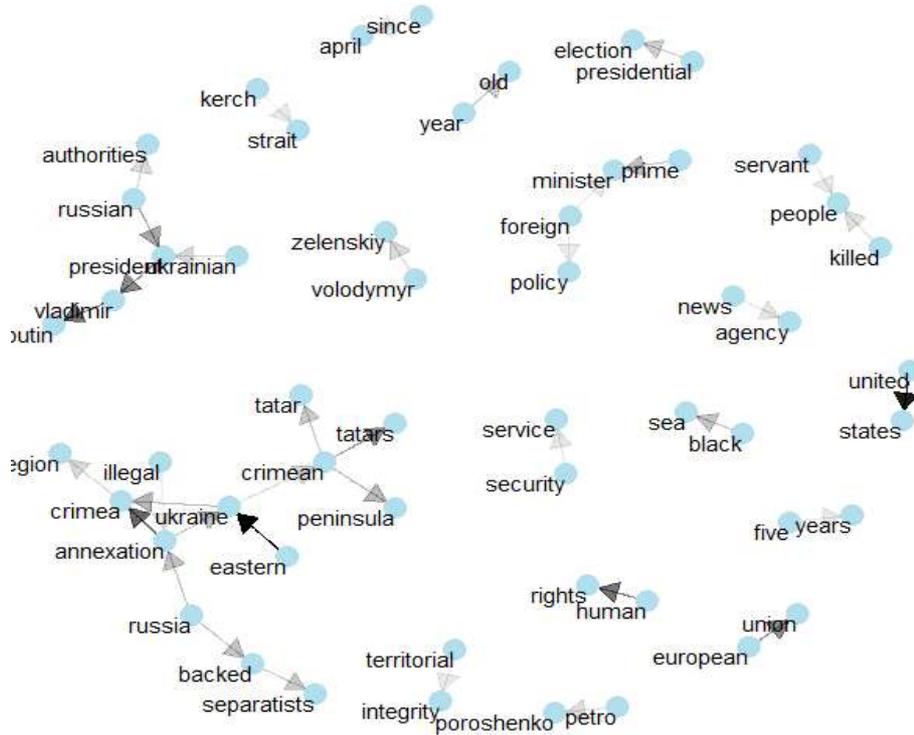
<표 12>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바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개수
1	eastern	ukraine	708
2	annexation	crimea	660
3	united	states	617
4	vladimir	putin	499
5	president	vladimir	406
6	pro	russian	397
7	russian	annexation	389
8	european	union	342
9	russian	president	320
10	prime	minister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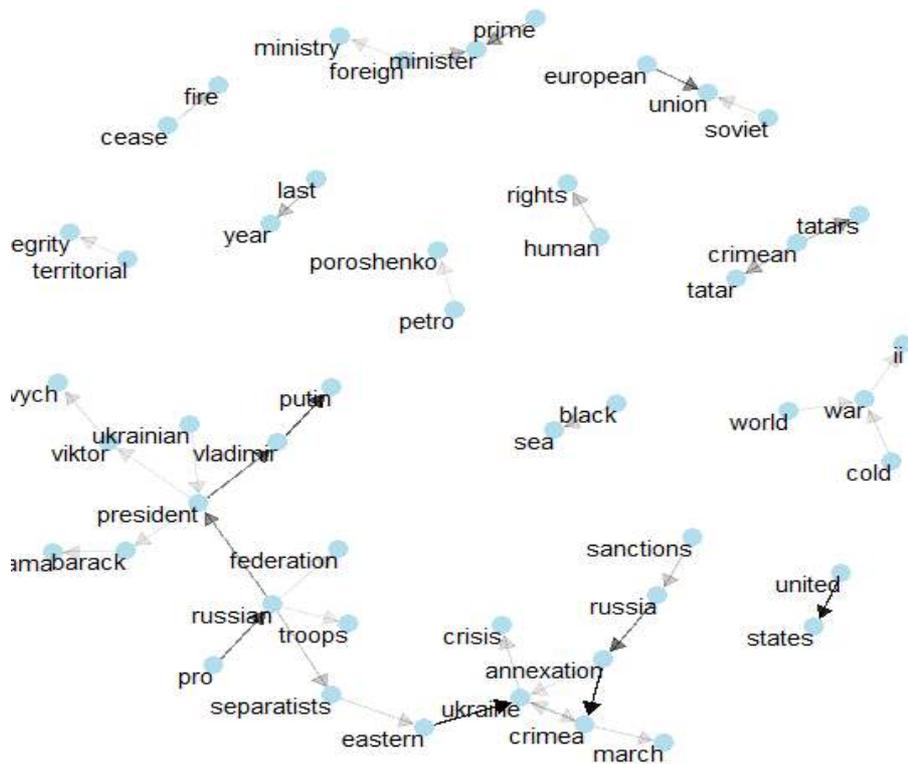
앞선 트라이그램 분석과 비슷하게, 2019년과 2014·2015년 기사보도의 바이그램도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1, 2, 3위를 차지한 바이그램의 종류가 같으며(eastern ukraine, annexation crimea, united states), 푸틴과 관련한 바이그램 역시 각 연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019년은 5위·6위·9위, 2014·2015년은 4위·5위·9위)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는 2019년 기사보도의 4순위인 'human rights'와 8순위인 'crimean tatars'이다. 이 두 바이그램은 2014·2015년 기사 보도에서는 10순위 내에 오르지 않은 것들이다. 크림반도 타타르인들은 본래 18세기 중반까지 크림반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튀르크 계통 민족이었으나,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67년부터 일부의 귀환을 허용되었으나, 재정착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어렵게 지켜낸 고향 땅과 정체성, 문화는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다시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타타르인은 러시아의 합병에 크게 반대를 해왔다. 2019년에 들어와 RFE/RL이 상대적으로 2014년, 2015년에 비해 소수민족인 타타르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였으며, 이를 인권 침해의 측면으로 크림반도 합병을 비판하는 주된 노선으로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RFE/RL의 2019년,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단어들의 군집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다. 2019년의 바이그램은 20번 이상 등장한 것으로, 2014·2015년의 바이그램은 100번 이상 등장한 것으로 설정했다. 바이그램이 흔할수록 링크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화살표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림 7>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9년 기사 단어 군집 시각화



<그림 8>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4-2015년 기사 단어 군집 시각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9년과 2014-2015년 기사 보도의 단어 군집도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다빈도 바이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human rights', 'crimean tatar

r(s)'가 2014·2015년 단어 군집도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2014·2015년 역시 소수민족 및 인권탄압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2015년 'crimea n tatar(s)'의 경우는 2019년과 달리 'ukraine'과 연관되어 나타나지 않고, 독립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화살표의 선명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 2019년의 것보다 더 약하다. 이 뜻은, 2019년의 기사보도가 2014·2015년의 기사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소수민족과 이들의 인권에 대해 더 주목하고,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주요 어젠다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의 차이점으로는 앞선 트라이그램 분석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2014·2015년에는 'word war ii'가 등장했다는 것과 'petro porshenko', 'presidential election' 등과 같은 시간 배경과 관련된 단어들의 등장이 있다.

다음으로는 각 연도 기사보도 속 최다 빈도단어였던 'russia'와 최다빈도 정서 단어였던 'conflict'와 결합하는 단어를 알아보겠다.

<표 13>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9년 기사보도 'russia'와 결합하는 단어

순위	단어	수
1	ukraine	20
2	sanctions	13
3	held	12
4	crimea	10
4	relations	9
6	since	9
7	conflict	8
8	forces	7
8	pro	7
10	annexation	6

<표 14>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4·2015년 기사보도 'russia'와 결합하는 단어

순위	단어	수
1	sanctions	180
2	ukraine	71
3	crimea	59
4	annexation	53
5	part	49
6	putin	42
7	join	41
8	since	40
9	following	39
10	response	38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두 연도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ukraine', 'sanctions', 'crimea', 'annexation', 'since'으로 10개 중 절반에 달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단어들은 비록 차이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에 어렵다. 다음은 최다 정서 단어인 'conflict'과 결합하는 단어들을 가리키는 표이다.

<표 15>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9년 기사보도 'conflict'와 결합하는 단어

순위	단어	수
1	armed	7
1	ongoing	7
1	ukraine	7

4	resolving	5
5	crimea	4
5	donbas	4
5	ending	4
8	end	3
8	involvement	3
8	resolve	3

<표 16> 크림반도 합병 관련 RFE/RL 2014·2015년 기사보도 'conflict'와 결합하는 단어

순위	단어	수
1	ukraine	49
2	end	29
3	involvement	20
4	crimea	14
5	frozen	12
6	armed	10
7	deadly	9
7	role	9
9	separatist	8
9	whose	8

조사 결과, 부정 단어 'conflict'와 결합하는 단어는 'russia'에 비해 연도 간 차이점이 더 많았다. 2019년의 경우, 'ongoing'이 1순위에 있다는 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ending', 'end', 'resolving', 'resolve'라는 단어와 결합함으로써 갈등의 해결, 종점에 집중을 했다. 한편, 2014·2015년은 사태가 막 발생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는 'frozen', 'deadly'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두 연도의 기사보도 모두 'armed'라는 단어가 높은 순위권에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RFE/RL의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그리고 2014·2015년 기사 보도의 단어 군집형태는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대통령 인물 변화와 같은 시대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차이점, 둘째, 크림반도 내부 소수민족의 인권사태에 대한 경각심 및 강조의 차이점, 셋째, 갈등의 종결과 갈등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차이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19년의 기사보도가 2014·2015년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단지, 조금 더 주목한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일 뿐이다.

4. 분석 결과 종합

RFE/RL 기사보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우선 최다빈도 단어의 경우, 크림반도 관련 RFE/RL의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는 상위 15개 단어 및 상위 100가지 단어에서도 매우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2014·2015년에는 합병의 과정에서 일어난 국제적 제재,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분리주의 운동, NATO의 개입과 같은 사태에 더 초점을 맞췄다. 정서 단어의 경우,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는 보편적으로 비슷한 정서 단어들을 보이며, 긍부정 정서에 기여하는 단어들의 종류 및 순위까지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단어의 군집형태의 경우, 2014·2015년과 2019년 사이 종류의 차이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2019년이 크림반도 내 소수민족과 이들의 인권 사안에 대해 강조를 더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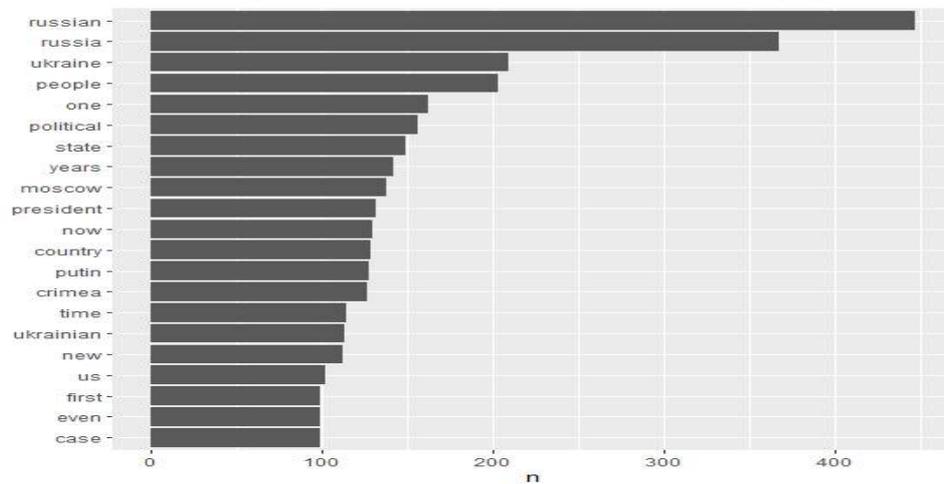
IV. ‘Новая газета’ 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Новая газета(노바야가제타) 사이트에 들어가 ‘аннексия Крым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필자는 2019년으로는 64개, 2014·2015년으로는 201개의 기사를 얻었다. 노바야가제타는 RFE/RL과 다르게 영문 버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노바야가제타의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영문으로 번역한 뒤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러시아어의 격체계 때문이다. 키워드인 ‘аннексия Крыма’를 보자. ‘Крым’이라는 단어의 2격인 Крыма는 R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다른 단어로 인식된다. 반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단어 자체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R 텍스트 마이닝에 더욱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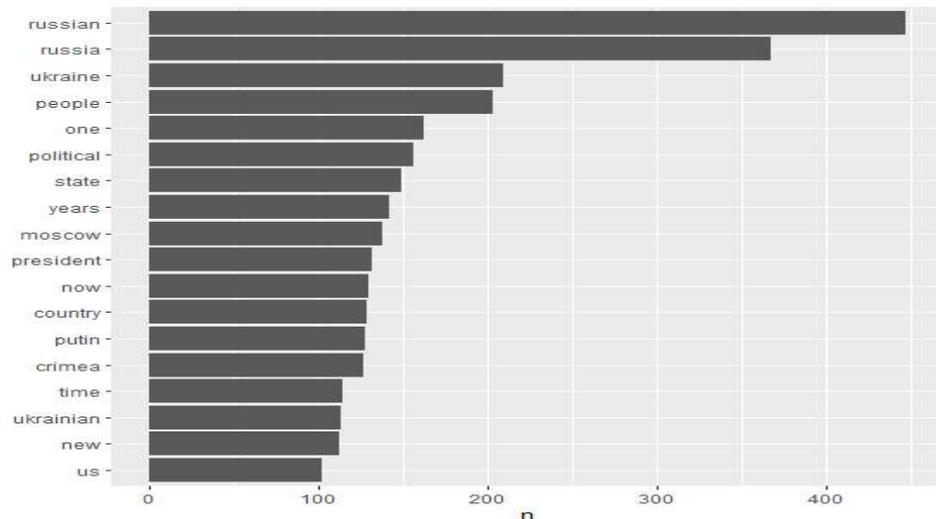
1. 기사보도 최다빈도 단어 비교

2019년도 기사들의 최다 빈도수로 나타난 단어들은 다음 표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표는 각각 총 90번 이상, 1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보여준다.

<표 17>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노바야가제타 기사에서 9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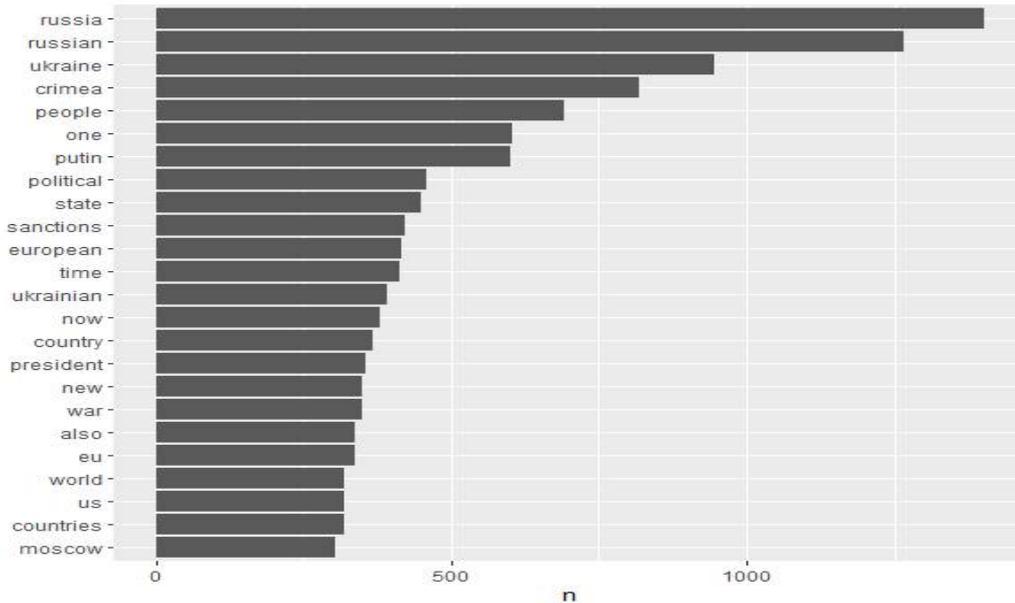


<표 18>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년 노바야가제타 기사에서 1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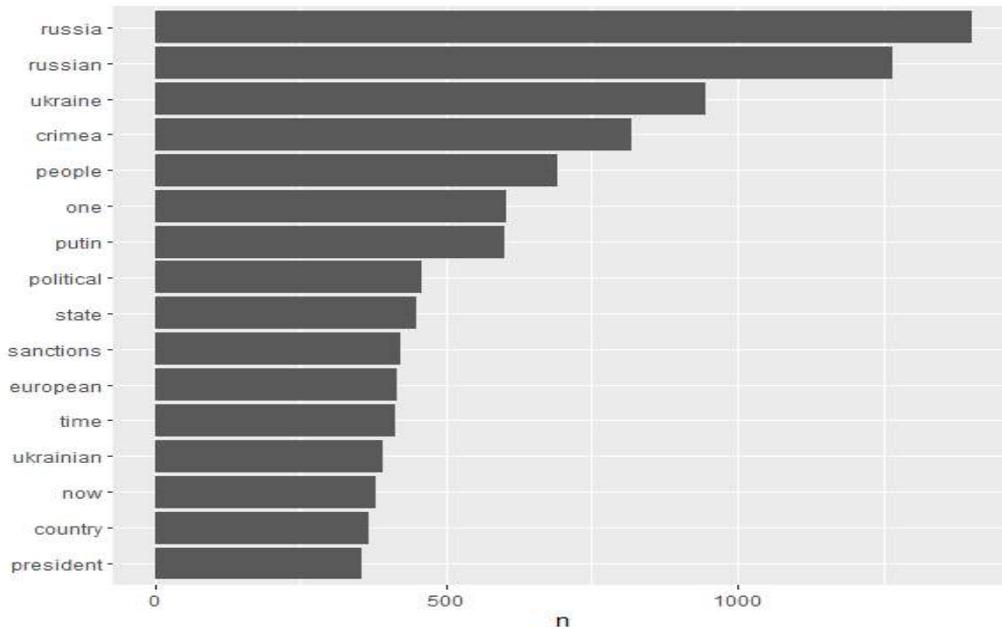


다음은 2014·2015년 기사의 최다빈도 단어를 나타내는 표이다. 각 표는 300번 이상, 350번 이상 출현한 단어를 보여준다.

<표 19>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노바야가제타 기사에서 30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표 20>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4·2015년 노바야가제타 기사에서 35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연도의 상위 10개 단어들은 순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종류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2019년의 경우 'years'가 있다는 것과 2014·2015년은 'sanctions'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2019년에는 시간의 기간 단위에 신경을 썼다는 것과,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상대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두 연도의 기사보도 간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강조했는지의 여부만이 차이로 존재한다. 최다빈도 90가지 단어는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2019년은 벨라루스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면, 2014·2015년에는 독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기사보도에서 벨라루스의 빈번한 등장은 벨라루스가 크림반도 다음으로 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을 끝으로 푸틴은 러시아의 3연속 집권 금지 규정에 의해 재출마할 수 없지만,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러시아-벨라루스 연방’ 대통령이 된다면 연임 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사실은 벨라루스 합병에 대한 푸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추진설이 잦아들지 않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크림반도 합병 사태 당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했었기 때문에 2019년이 아닌 2014·2015년 기사보도에 더 자주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9년에는 러시아 정교회(orthodox church)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2014·2015년 기사보도에는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역시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한 차이로, 크림반도 합병이 벌어진 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크림반도 내부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확산이다. 현재 크림반도에 남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회는 단 하나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러시아 정부의 압박 하에 신도들과 재산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²²⁾

요약하자면,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의 2019년 그리고 2014·2015년 기사 보도의 최다빈도 단어는 RFE/RL의 기사 보도보다 더욱 일치하며, 존재하는 차이는 시대적 배경에 기인하는 특수성뿐이다.

2. 기사보도 단어 정서 분석

다음은 노바야가제타의 2019년 그리고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단어들에 대한 정서 분석이다. 우선 최다 정서 단어들이다.

<표 21>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9년 기사보도 속 최다 정서 단어

순위	단어	감정	수
1	like*	positive	82
2	well	positive	75
3	criminal	negative	73
4	work*	positive	71
5	trump*	positive	68
6	right*	positive	52
7	opposition	negative	49
8	protest	negative	48
9	important*	positive	47
10	clear	positive	46

21) 이본영, ‘러시아의 다음 합병 대상은 벨라루스?’, 한겨레, 2019.7.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00032.html>) (검색일: 2019.12.4.)

22) Alona Savchuk, ‘In Occupied Crimea, Ukraine’s church is facing extinction’, openDemocracy, 2019.11.11., (<https://www.opendemocracy.net/en/odr/ukraine-orthodox-church-crimea-extinction/>) (검색일: 2019.12.4.)

<표 22>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최다 정서 단어

순위	단어	감정	수
1	like*	positive	277
2	well	positive	234
3	crisis	negative	206
4	work*	positive	192
5	support	positive	188
6	right*	positive	183
7	important*	positive	135
8	good	positive	127
9	conflict	negative	101
10	clear	positive	100

최다 정서 단어 10가지 중 2019년과 2014·2015년 기사 보도는 6가지 단어를 공유한다. ('like', 'well', 'work', 'right', 'important', 'clear') 그러나 앞선 정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중 많은 단어들은 정서가 아닌 다른 것을 지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이들을 모두 앞선 RFE/RL 정서 분석에서도 했듯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서 단어들을 봤을 때, 'well'이라는 단어를 빼고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도별 순위 3위를 차지한 단어가 흥미롭다. (2019년 criminal, 2014·2015년 crisis)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iminal'을 강조했다는 것은 범법자, 즉 법을 어긴 행위 및 개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크림반도의 타타르인을 최근 체포하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crisis'는 사태 자체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 다른 최다 정서 단어인 'protest'(2019년 8위)와 'conflict'(2014·2015년 9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다 정서 단어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다른 의미를 지칭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관계로 본 장에서는 앞선 정서 분석과는 달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기여하는 단어들을 시각화하지 않고 90가지 최다 정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의 형식으로 보겠다.

<그림 11> 크림반도 합병 관련 2019 노바야가제타 기사보도 속 긍부정 단어 워드클라우드



without	delay	3
without	help	3
without	losing	3
never	agree	2
without	doubt	2
without	problems	2
never	afraid	1
never	allow	1
never	damage	1
never	failed	1

요약하자면, 2019년과 2014·2015년의 기사보도는 최다빈도 정서 단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정서 단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다기보단, 크림반도 합병의 부정성을 다루는 데 있어 초점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사보도 단어 군집형태

1)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기사보도 트라이그램 분석

다음은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의 2019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25>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9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단어3	수
1	russian	orthodox	church	36
2	article	criminal	code	21
3	hizb	ut	tahrir	14
4	part	article	criminal	11
5	ministry	internal	affairs	10
6	assembly	council	europe	9
6	parliamentary	assembly	council	9
8	ministry	foreign	affairs	8
9	human	rights	activists	6
9	president	vladimir	putin	6

<표 26>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트라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단어3	수
1	human	rights	activist	24
2	annexation	crimea	russia	22
3	people	artist	russia	19
3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19
5	ministry	foreign	affairs	17
6	anti	russian	sanctions	16
7	crimea	russian	federation	15
7	heads	state	government	15

7	implementation	minsk	agreements	15
7	un	general	assembly	15

트라이그램 표를 보면 자칫 각 연도의 기사보도가 매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차이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오히려 같은 맥락에서 트라이그램이 분포하고 있다. 우선 겉보기로도 같은 공통점을 나열해보자면, 인권과 관련 있는 'human rights activist'(2019년 9위, 2014·2015년 1위), 정부 부처와 관련 있는 트라이그램(2019년은 8위인 'ministry foreign affairs, 5위인 'ministry internal affairs', 그리고 6위인 'parliamentary assembly council', 2014·2015년은 5위인 'ministry foreign affairs'), 푸틴을 가리키는 트라이그램(2019년은 9위인 'president vladimir putin', 2014·2015년은 3위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7위인 'heads state government'), 유럽연합과 관련된 트라이그램(2019년은 6위인 'assembly council eu rope', 2014·2015년은 7위인 'implementation minsk agreements')이 있다.

차이점으로 보이는 2019년 기사보도의 트라이그램 'russian orthodox church'와 'article criminal code', 'hizb ut tahrir'은 분명 2014·2015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트라이그램이다. 이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정부의 '만행'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russian orthodox church'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회가 이제는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크림반도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article criminal code'와 'hizb ut tahrir'은 크림반도 내 타타르인들에 대한 탄압을 가리킨다. hizb ut tahrir은 러시아, 독일, 이집트,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서 조직화가 불법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최근 러시아 재판부는 6명의 크림반도 타타르인에게 hizb ut tahrir에 가입을 했다는 명목으로 최고 19년형을 선고했다.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러시아 재판부의 결정을 '크림반도 타타르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탄한 바가 있다.²³⁾

2)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기사보도 바이그램 분석

다음은 노바야가제타 기사보도 속 최다빈도 바이그램이다. 빨간색 표시는 컴퓨터 오류다.

<표 27>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9년 기사보도 속 바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수
1	annexation	crimea	58
2	human	rights	45
3	orthodox	church	40
4	council	europe	38
5	russian	federation	37
5	russian	orthodox	37
7	쫘*	he*	36*
8	united	states	31
9	criminal	code	25
10	russian	authorities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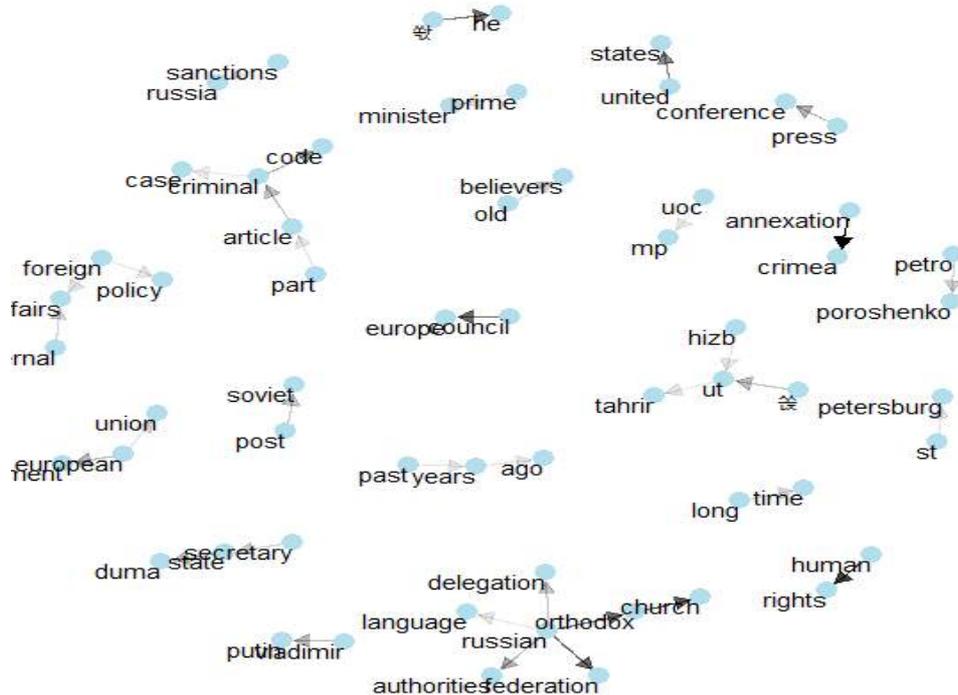
23) AFP, 'Russia Sentences Six Crimean Tatars For Links to Banned Group', VOA, 2019.11.12., (<https://www.voanews.com/europe/russia-sentences-six-crimean-tatars-links-banned-group>), (검색일: 2019.12.4)

<표 28>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바이그램

순위	단어1	단어2	수
1	annexation	crimea	211
2	russian	federation	166
3	united	states	112
4	european	union	101
5	prime	minister	83
5	human	rights	68
7	vladimir	putin	65
8	eastern	ukraine	63
9	ukrainian	crisis	62
10	cold	war	56

각 바이그램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연도 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공통점으로는 두 연도 모두 'crimea annexation'이 1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russian federation'(2019년 37위, 2014·2015년 2위), 'united states'(2019년 8위, 2014·2015년 3위), 유럽연합과 관련 있는 바이그램(2019년 'council europe' 4위, 2014·2015년 'european union' 4위), 'human rights'(2019년 2위, 2014·2015년 5위)가 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트라이그램과 최다빈도 단어에서 봤듯이, 2019년의 경우 'orthodox church', 'criminal code', 'russian orthodox'과 2014·2015년의 경우 'eastern ukraine', 'ukrainian crisis'과 같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바이그램들이다. 다음은 노바야가제타의 2019년, 2014·2015년 기사보도 속 단어들의 군집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다. 2019년은 12번 이상, 2014·2015년은 30번 이상 등장한 바이그램을 시각화했다.

<그림 13>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9년 기사 단어 군집 시각화



<표 30> 크림반도 합병 관련 노바야가제타 2014·2015년 기사보도 'russia'와 결합하는 단어

순위	단어	수
1	relations	47
2	sanctions	42
3	crimea	38
4	artist	25
5	ukraine	17
6	eu	15
7	putin	14
8	towards	13
9	cooperation	12
10	new	11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연도의 기사보도 속 최다빈도 단어 'russia'는 공통적으로 'sanctions'(2019년 1위, 2014·2015년 2위)과 'relations'(2019년 4위, 2014·2015년 1위)와 결합한다. 두 연도의 기사보도 모두 러시아라는 국제사회의 행위자(agent)가 크림반도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된 갈등상황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2014·2015년은 'ukraine', 'eu', 'cooperation'과 같은 단어들과 결합함으로써 대외관계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 분석 결과 종합

노바야가제타 기사보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우선 최다빈도 단어의 경우, 크림반도 관련 노바야가제타의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의 상위 10개 단어들은 순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종류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최다빈도 90가지 단어 역시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 존재하는 차이점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정교회'와 같이 시대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정서 단어의 경우, 2014·2015년 기사와 2019년 기사는 최다빈도 10순위에 2019년에는 'criminal'과 'protest'가, 2014·2015년에는 'crisis'와 'conflict'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크림반도 합병 사태를 다루는 관점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0가지의 정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살펴본 결과, 두 연도 기사보도 속 긍·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군집형태의 경우, 두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RFE/RL에서 보인 차이보다 더욱 큰 차이인데, 아예 새로운 종류의 클러스터가 훨씬 더 다양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두 연도 모두 러시아의 외교적 관계 및 갈등에 주목하고는 있으나, 2019년의 경우, 크림반도 합병 이후 크림반도 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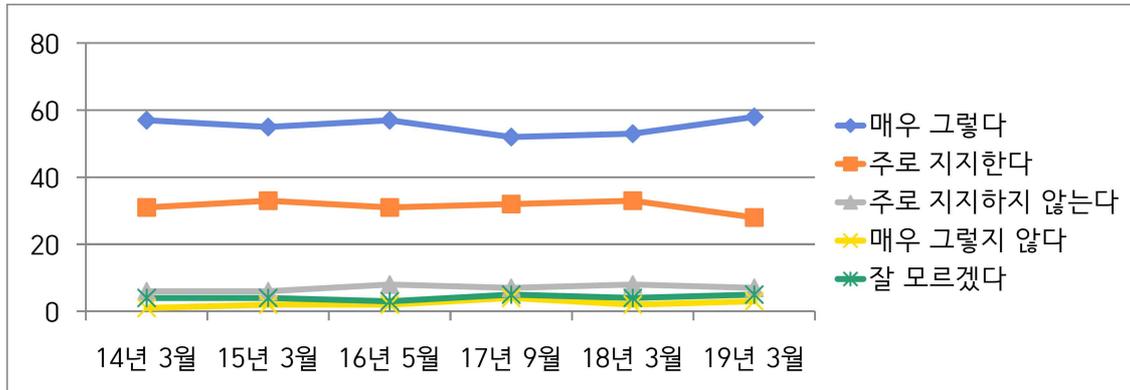
V.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 여론 영향력 검토

1.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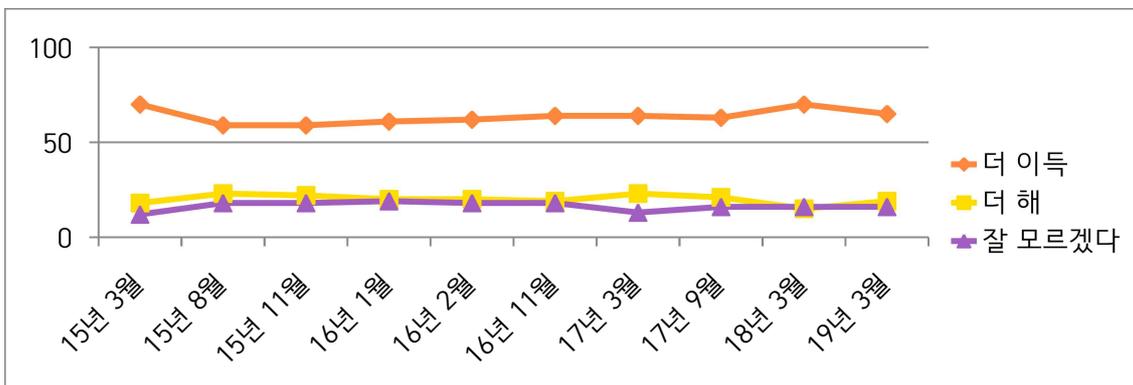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시도가 있었다. 여론분석기관인 레바다-센터는 18세가 넘는 사람 1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는 도심·지방 모두 합쳐 137개 곳에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집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레바다-센터는 저명한 사회학자 유리 레바다가 세운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회여론분석기관으로서 사회, 정치, 경제,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양적, 질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과도 종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인용되는 본 여론조사기관은 과거 2013년 5월 모스크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외국 에이전트”라고 인정된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받은 바가 있다.²⁴⁾ 여기서 “외국 에이전트”라는 용어는 ‘스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레바다-센터가 러시아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기관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여론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차트²⁵⁾이다. 모든 질문은 한 가지 답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당신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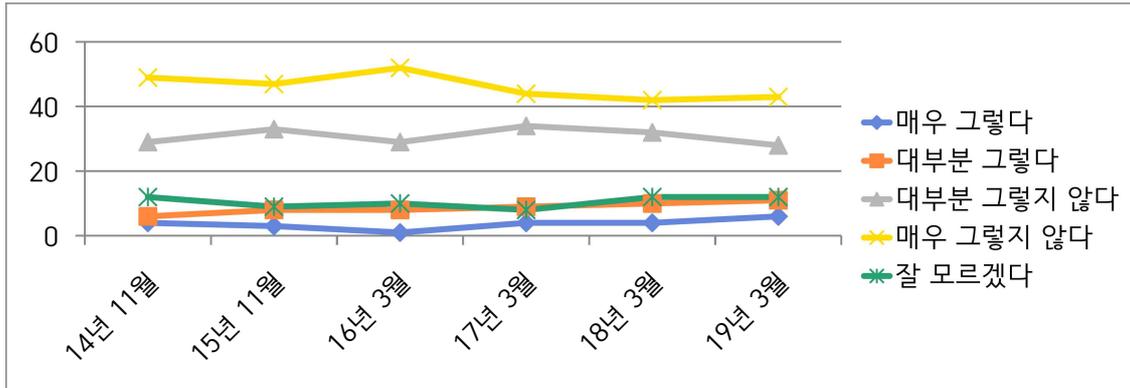
<당신 생각에 크림반도 합병이 러시아에 이득과 해 중 무엇이 더 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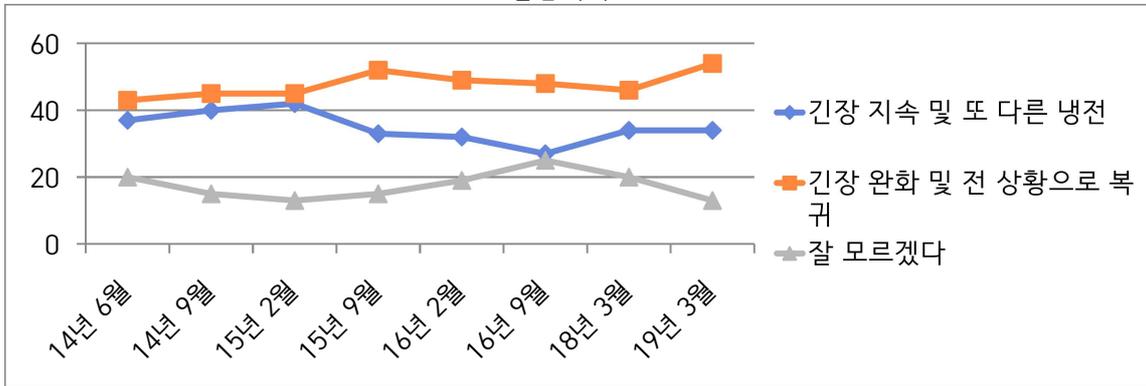
24) 신동혁, 「러시아 ‘비영리단체’ 개정법과 ‘레바다-센터’」,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Russia-CIS Focus 225호, 2013, pp. 1~2

25) 모든 차트는 레바다-센터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www.levada.ru/en/2019/04/11/crimea-five-years/>) (검색일: 2019.12.4.)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함으로써 국제조약과 의무를 어겼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와의 갈등 이후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여론은 5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여론조사 결과,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나마 견해차가 좁은 것은 마지막 질문인 <최근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와의 갈등 이후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이다. 다른 질문들에 비해 '긴장이 지속된다'는 입장과 '긴장이 완화된다'는 대립하는 입장 간의 차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4년 6월과 14년 9월 차이가 5였던 것에 비해(14년 6월은 긴장 지속: 37 긴장 완화: 43/ 14년 9월은 긴장 지속: 40, 긴장 완화: 45) 19년 3월은 차이가 20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면(긴장 완화: 34, 긴장 지속: 54) 두 입장 간의 차이 역시 점점 커진 관계로, 합병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 러시아 여론과 진보계열 미디어의 영향력

여론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 대통령, 의회, 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개인적 의견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의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여론은 정부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근거이자,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크림반도 합병에 관한 러시아의 여론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진보계열 미디어라고 불릴 수 있는 RFE/RL과 노바야가제타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 결과, RFE/RL과 노바야가제타 모두 2014·2015년과 2019년의 기사보도 최다빈도 단어의 종류와 순위가 매우 유사했으나, 2014·2015년이 상대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 제재, 우크라이나 내전 및 분리주의 운동과 같은 국제적인 갈등상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서 단어의 경우,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한 차이점을 제외한 유의미한 차이점은 노바야가제타에서 발견되었다. 크림반도 사태를 다루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2014·2015년에는 ‘conflict’, ‘crisis’와 같은 부정 단어를 사용했다면 2019년에는 ‘protest’, ‘criminal’을 사용했다. 이는 5년 전의 경우, 크림반도 합병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가 국제사회에서의 갈등과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했다면, 현재는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크림반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인의 피해 및 인권 침해 현상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바야가제타 역시 최다빈도 정서 단어 90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두 연도 간의 긍·부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 점에서 일치했다. 단어의 군집형태는 RFE/RL과 노바야가제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바야가제타가 RFE/RL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바로 2019년에 크림반도 내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 및 의제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2014·2015년에도 두 미디어 모두 ‘human rights’라는 클러스터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RFE/RL의 경우, 인권탄압의 대상이었던 ‘crimean tatars’ 클러스터가 ‘ukraine’과 같은 다른 클러스터와 연동되는 형태를 띠었다. 노바야가제타의 경우 2014·2015년에 비교했을 때, 트라이그램부터 바이그램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군집형태들이 등장했으며, 모두 크림반도 내 타타르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크림반도 합병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진보 미디어의 전략적 말하기 기법은 부분적이지만,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와의 마찰에 대한 강조에서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초점의 변화는 프레이밍 효과 혹은 점화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이는 러시아인들의 여론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긍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해석 및 함의를 지닌다. 첫째,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같은 주제는 러시아 수용자의 의견을 변경하는 데 있어 미비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여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둘째,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의 5년 사이의 변화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여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도출된 두 해석 및 함의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진보계열 미디어는 러시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실패하였으며, 5년간 RFE/RL과 노바야가제타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활용한 전략적 말하기 방식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의 진보계열 미디어가 러시아인들의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대표적인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로 거론되는 RFE/RL과 노바야가제타의 크림반도 합병 관련 기사들을 2014·2015년, 그리고 2019년으로 나눈 뒤, 이들에 대한 R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19년 RFE/RL의 기사는 137개, 2014·2015년 기사는 879개를, 2019년 노바야가제타의 기사는 64개, 2014·2015년 기사는 201개로 총 1,281개의 기사를 수집할 수 있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필자는 각 연도 간 기사보도 사이의 최다빈도 단어와 정서 단어, 그리고 단어의 군집형태를 알아봤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단계들을 통해 크림반도 합병 사태를 다루는 두 미디어의 관점이 5년간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림반도 타타르인이 겪는 인권탄압 문제는 2014·2015년에도 물론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지만, 2019년에 들어서는 중점적인 어젠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공했다. 첫째,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같은 주제는 러시아 수용자의 의견을 변경하는 데 있어 미비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여론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둘째,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의 5년 사이의 변화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여론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당연히 존재한다. 우선, R 텍스트 마이닝은 영어를 기본 데이터로 상정한 다. 러시아 미디어가 연구대상인 본 연구에 이는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언론 구조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 여론 형성에 있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텔레비전 채널들을 국가 및 국영 기업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이로 인해 라디오와 신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진보계열 미디어가 러시아 여론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국가 간 대결 구도 측면으로만 다뤄진 크림반도 합병 사태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히 새로운 시대라고 평가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사회과학 연구의 길을 갈구하고자 했다. 현재 우리는 모든 뉴스 기사들이 간단한 검색어 하나로 찾아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엄청난 양과 처리되기 어려운 복잡성은 빅데이터 연구의 어려움을 가중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성 역시 증가시킨다. 빅데이터 연구의 중요한 한 갈래인 텍스트 마이닝은 분명 앞으로 매우 필요한 분석기법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과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본 연구를 제출한다.

VII.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과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2. 국내 논문

●계용택,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시베리아연구 19권 2호, 2015

●반현·Maxwell E. McCombs,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2007

●백두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요인 분석-방어적 현실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러시아지역전공, 2016

●서동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150권 0호, 2014

「크림병합 이후 3년: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0, 2017

●신동혁, 「러시아 '비영리단체' 개정법과 '레바다-센터」,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Russia-CIS Focus 225호, 2013

●이건호, 「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점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2006

●이문영, 「형제국가들의 역사전쟁-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기원」,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15

●이유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진보평론, 진보평론 62호, 2014

●우평균,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및 한반도 상황간의 대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57권 4호, 2014

●온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러시아 관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2015

●유철종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푸틴을 위한 변명」, 관훈클럽, 관훈저널 가을호 통권 132호, 2014

3. 국외 논문

●Anatoly Kasputin, *Crimea's Self Determination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5, 2015

●Brad R. Roth, *The Virtues of Bright lines: Self-Determination, Secession, and External Intervention*, German Law Journal Vol. 16 No. 3, 2015

●Christopher J. Borgen, *Law, Rhetoric, Strategy: Russia and Self Determination Before and After Crime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ume 91, 2015

●Christian Marxsen, *The Crimea Crisis-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4 No. 2, 2014

- Katja lehtisaari, *Market and Political factors and the Russian Media*,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5
- Robin Geiß,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The Mills of International Law Grind Slowly but They Do Grind*,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ume 91, 2015
- Tetyana Malyarenko·David J. Galbreath, *Crimea: Competing Self-Determination Movements and the Politics at the Centre*, Europe Asia Studies Vol. 65 No. 5, 2013
- Thomas D. Grant, *Annexation of Crim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9 No. 1, 2015
- Vera Slavtcheva-Petkova, *Fighting Putin and the Kremlin's grip in neo-authoritarian Russia: The experience of liberal journalists*, Journalism 20(11), 2017
- Vladislav Tolstykh, *Three Ideas of Self-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Reunification of Crimea with Russia*,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5, 2015

4. 인터넷 뉴스

- 이본영, '러시아의 다음 합병 대상은 벨라루스?', 한겨레, 2019.7.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00032.html>)
- 이재형, [동북아 窓] 크림반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교훈, <천지일보>, 2018/12/1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772>)
- Andrew Osborn, 'Russian court fines Radio Free Europe for breaking 'foreign agent' law', 2018.7.6.,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usa-media-restrictions/russian-court-fines-radio-free-europe-for-breaking-foreign-agent-law-idUSKBN1JV2IK>)
- Alona Savchuk, 'In Occupied Crimea, Ukraine's church is facing extinction', open Democracy, 2019.11.11., (<https://www.opendemocracy.net/en/odr/ukraine-orthodox-church-crimea-extinction/>)
- AFP, 'Russia Sentences Six Crimean Tatars For Links to Banned Group', VOA, 2019.11.12., (<https://www.voanews.com/europe/russia-sentences-six-crimean-tatars-links-banned-group>)

5. 기타

- 프리덤하우스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9/russia>)
- 레바다-센터 (<https://www.levada.ru/en/2019/04/11/crimea-five-years/>)

VIII. 부록

```
#####텍스트 정돈#####
library(dplyr)
docs
docs_df <-tibble(line=1:1, docs=docs)

library(tidytext)
docs_df %>%
  unnest_tokens(word, docs)

docs2<-docs_df %>%
  unnest_tokens(word, docs)

#####최다빈도 단어 분석#####
docs2 %>%
  count(word, sort = TRUE)

library(ggplot2)
docs2 %>%
  count(word, sort = TRUE) %>%
  filter(n>150) %>%
  mutate(word = reorder(word, n)) %>%
  ggplot(aes(word, n)) +
  geom_col() +
  xlab(NULL) +
  coord_flip()

library(wordcloud)
docs2 %>%
  anti_join(stop_words) %>%
  count(word) %>%
  with(wordcloud(word, n, max.words=100))

#####감정 분석#####
bing_word_counts<-docs2 %>%
  inner_join(get_sentiments("bing")) %>%
  count(word, sentiment, sort = TRUE) %>%
  ungroup()

bing_word_counts %>%
  group_by(sentiment) %>%
  top_n(10) %>%
  ungroup() %>%
  mutate(word=reorder(word, n)) %>%
  ggplot(aes(word, n, fill = sentiment)) +
  geom_col(show.legend = FALSE) +
  facet_wrap(~sentiment, scales = "free_y") +
  labs(y="Contribution to sentiment", x=NULL) +
  coord_flip()

library(reshape2)
docs2 %>%
  inner_join(get_sentiments("bing")) %>%
  count(word, sentiment, sort=TRUE) %>%
  acast(word ~ sentiment, value.var = "n", fill = 0) %>%
  comparison.cloud(colors = c("gray20", "gray80"), max.words= 100)

#####감정 분석 검토#####
negation_words<-c("not", "no", "never", "without")
negated_words<-bigrams_separated %>%
  filter(word1 %in% negation_words) %>%
  inner_join(get_sentiments("afinn"), by=c(word2="word")) %>%
  count(word1, word2, sort=TRUE) %>%
  ungroup()
```

```

negated_words

#####바이그램 분석#####
library(dplyr)
library(tidytext)
library(tidyr)

docs_bigrams <- tibble(line=1:1, docs=docs) %>%
  unnest_tokens(bigram, docs, token = "ngrams", n=2)

docs_bigrams %>%
  count(bigram, sort=TRUE)

#####트라이 그램 분석#####
tibble(line=1:1, docs=docs) %>%
  unnest_tokens(trigram, docs, token = "ngrams", n=3) %>%
  separate(trigram, c("word1", "word2", "word3"), sep = " ") %>%
  count(word1, word2, word3, sort=TRUE)

#####군집도 시각화#####
bigrams_separated <- docs_bigrams %>%
  separate(bigram, c("word1", "word2"), sep=" ")
bigram_counts<-bigrams_separated %>%
  count(word1, word2, sort = TRUE)

library(igraph)
bigram_graph<-bigram_counts %>%
  filter(n>20) %>%
  graph_from_data_frame()
bigram_graph

a<-grid::arrow(type="closed", length=unit(.15, "inches"))
ggraph(bigram_graph, layout = "fr") +
  geom_edge_link(aes(edge_alpha=n), show.legend=FALSE, arrow = a, end_cap=circle
(.07, 'inches')) +
  geom_node_point(color="lightblue", size = 5) +
  geom_node_text(aes(label=name), vjust=1, hjust=1) +
  theme_void()

```